

[ 사회 ]

# 광주·전남 학교 눈병 '비상'

## 각결막염 환자 평소보다 20~30% 급증...확산 조짐

광주·전남지역에 유행성 눈병(각결막염)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18일 광주지역 안과 의원들에 따르면 이달 들어 전염성이 강한 눈병인 유행성 각결막염에 걸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평소보다 20~30% 증가했다. 환자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유행성 눈병이 점차 확산될 것이 우려된다.

**유행성 각결막염 예방법**

- ▲사람 많은 곳을 피한다
-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눈병에 감염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다
- ▲수건이나 컵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광주시 동구 급동 '광주 안과'의 경우 하루 평균 20~30여 명이, 남구 주월동 '참빛 안과'는 13~15명의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들이 찾고 있다. 광산구 송정동 '아이 안과' 송정점과 북구 오치동 '현대 안과'의 경우 이달 들어 유행성 각결막염 환자가 하

루 10명을 넘어섰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안 질환은 '아데노 바이러스'(adeno virus)로 전염하는 유행성 각결막염으로, 바이러스가 3~7일 동안 잠복한 뒤 발병한다.

# 증인신문 "자세히, 여러번"

## 광주지법 첫 도입

앞으로 법원의 증인 신문(訊問)이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의 쟁점사항별로 나뉘어 구체적으로 진행된다. 광주지법은 18일 증인에 대한 한차례식의 증인신문과 반대신문만으로 이뤄졌던 증인 신문방식을 쟁점별, 단계적으로 나뉘어 수차례 가능토록 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쟁점별 증인 신문(訊問)= 심리과정에서 드러난 제1 쟁점을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 정리한 뒤, 제2·제3 쟁점을 다시 증인신문과 반대신문을 통해 심리하는 방식.

법원은 이를 위해 변론준비 기일이 나 변론기일에 당사자(변호인)가 주장하는 요지와 쟁점을 쟁점정리 조서에 기록, 사전에 교부하고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준 뒤 증인 신문사항의 작성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원의 증인 신문방식은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먼저 사건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신문(증인신문)한 다음, 상대방이 증인신문에 대해 반박하는 신문(반대신문)으로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사건 전반에 걸친 질문이 장황하게 되고 ▲증인은 제대로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답변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증을 하게 되는 등 증인이 진실을 밝히는 적절한 수단으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새 증인 신문방식은 구술심리·공판 중심주의의 핵심으로 우리 법원이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 찬반투표 돌입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안병강·이하 보건노조)가 18일 '의료법 개정안 폐지'와 '국립대 병원 법인화 반대' 등을 위한 파업 찬반투표를 들어갔다. 보건노조는 이날 전남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1일까지 4일간 14개 지부 회원 3천200명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이날부터 21일까지 지부 간부들이 지부 병원 복도에서 투표를 홍보하는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투표가 마무리되는 25일에는 서울로 상경, 국회 앞에서 열리는 보건노조 산별 총파업 전야제에 참석해 의료법

개정방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동참할 계획이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각 지부별투표를 임금 및 단체협상 등이 진행되고 있어 총파업 여부를 아직 밝힐 수 없고 전국 단위의 투표인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총파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보건노조에는 전남대·조선대·기독교 병원·보훈병원(이상 광주), 성요한병원·성가톨릭 병원·순천 의료원(순천), 목포 의료원·간지 의료원·보성 아산병원 등지의 간호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업무과 직원 3천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오광복기자 kroh@



**"인터넷 하니 즐겁네"** 18일 오전 광주시 남구청 1층 전산교육장에서 20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 기초'에 관한 무료 정보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6주간의 일정으로 월·수·금 오전 10시부터 두 시간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4주간의 기초반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활용반으로 진학해 심화수업을 받게 된다. (남구청 제공)

# 광주상의 "파업·쟁의 철회" 호소

## 금호타이어 노조 21일부터 태업키로

금호타이어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하루 작업량을 평소 80% 수준으로 줄이는 태업(怠業)에 돌입한다. 노조는 18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행사 참석 및 출장을 거부하기로 했다. 노사 양측은 19일 예정된 10차 교섭에서 노조 측이 요구하고 있는 ▲임금 9% 인상 ▲2006년 추가성과급 요구 ▲2007년 성과급 제시 ▲종교유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민미기자 emlee@kwangju.co.kr

한편 광주상공회의소는 18일 성명을 내고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가 상급단체인 금호노조의 지침에 따라 한미 FTA 저지와 산별교섭 성사를 위해 오는 26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금호타이어 노조도 지난 15일 쟁의행위를 결의해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파업 계획과 쟁의 행위를 즉각 철회하고, 평화로운 노사문화 정착에 앞장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복기자 kroh@

# 복장불량 학생 강의실 출입금지?

## 한양대 학생회 반발

한양대의 경영대학 건물 입구에 복장이 불량한 학생들의 건물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되자 학생회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양대 경영대학장은 최근 건물

건수령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질의한다"고 밝혔다. 손태원 경영대학장은 "최근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면서 슬리퍼에 반바지 트레이닝복을 입고 건물을 돌아다니는 학생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미려한 경영자가 될 경영학도들에게 공공장소에 알맞은 에티켓을 상기시키고 안내 지키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출입금지' 안내문을 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연남뉴스

**맑은 하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주	구름조금	19~29℃
포항	구름조금	19~27℃
여수	구름조금	18~25℃
안동	구름조금	18~27℃
대구	구름조금	17~31℃
부산	구름조금	18~27℃
울산	구름조금	17~28℃
대전	구름조금	17~26℃
충주	구름조금	17~30℃
청주	구름조금	18~28℃
전주	구름조금	17~28℃
광주	구름조금	18~30℃
목포	구름조금	17~30℃
제주	구름조금	17~24℃

6월 19일 (음 5월 5일) 전국날씨

서울: 맑음, 부산: 맑음, 대구: 맑음, 대전: 맑음, 광주: 맑음, 목포: 맑음, 전주: 맑음, 충청: 맑음, 전북: 맑음, 전남: 맑음, 경북: 맑음, 경남: 맑음, 제주: 맑음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수)	21(목)	22(금)	23(토)	24(일)	25(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20/28	20/27	20/26	20/25	20/25	20/28

# 출판계 사상 최고액 표절 소송

**영어교재 저술가 조화유씨 출판사·교사 상대 6억원씩**

재미 작가가 영어교재 저술가로 유명한 조화유(64)씨가 자신의 영어교재에 대한 표절 혐의를 두고 출판계 사상 최고액의 소송을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법은 조씨가 '이것이 미국영어이다' '이럴 땐 영어로 이렇게 말하세요' '조화유 미국생활영어' 등 자신이 저술한 영어교재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등학교 교사 A씨와 B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달 냈다고 18일 밝혔다. /연남뉴스

# 어린이 층치 1972년 이후 첫 감소

어린이들의 층치 숫자가 1972년 구강건강 실태조사가 시작된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전국의 6세 이상 국민 1만5천7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공개한 '2006년 국민 구강건강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다. 12세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층치는 평균 2.16개였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6개)보다는 훨씬 많은 것이지만, 197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든 것이다. 어린이들의 평균 층치 수는 1972년 0.6개에서 ▲79년 2.2개 ▲90년 3.0개 ▲2000년 3.3개 ▲2003년 3.25개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층치를 경험한 어린이 비율도 2003년 75.9%에서 61.0%로 줄었다. 층치 질환이 있는 청소년(15~19세)과 성인(35~44세)도 2003년 각각 38.2%와 72.4%에서 지난해에는 27.7%와 56.8%로 줄었다. /연남뉴스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검정과 사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큐 향상, 성인에게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본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봉사처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모/집/대/상※

- 유치원, 초·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중·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큐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B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교육비 : 무료(미술투구비 별도, 개인소장)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앞 제일B/D 3층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수)

○신청인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교원, 대면도장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마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야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제1회 시험 10월 14일 확정 -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취업 가능...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국 중 교통사고와 사망률이 각각 1.29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문화화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

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되며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고용증출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 (참고: 사고발생 약21만건, 사상자 약34만명, 이의신청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 등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무관하다. 특히, 일반시험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공인 제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하면 시험 첫해인 올해 유래 없이 많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탄생될 전망이다.

상담문의 / (062)528-7788

- 자격인증기관: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

**두메 21세기 식문화를 재창조 하는 젊은 기업**

- 외식업계 15년 노하우로 어머니의 정성과 손맛을 드립니다.**  
이·취임식, 창립기념식, 세미나, 회갑연, 피로연, 출장뷔페, 시세상, 도시락 등 기타음식행사
- 어머니 정성 그대로 담은 100% 순수 국내산 맛깔찬 김치!**  
30여종의 다양한 김치 생산으로 홍콩, 대만, 일본 등 수출 2003, 2004 광주김치대축제 최우수상 수상
- 학교, 병원, 기업체, 관공서 등 위탁급식운영 및 식자재 납품**

**두메외식산업(주)** www.dumept.co.kr  
**두메김치(주)** www.dumekimchi.co.kr  
**두메푸드시스템(주)** www.dume1992.co.kr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401-2 TEL.(062)571-6000 FAX(062)571-6030